

2013년도 닭고기 수급 및 가격전망

2012년 육계 산업은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을 동시에 겪은 힘든 한해였다. 계다가 수입량까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계절적으로 2~3월, 7~8월 산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예년만 못했고 수입량 증가와 소비부진으로 공급량의 증가가 크지 않음에도 산지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힘겨웠던 2012년을 결산하고, 연장선에서 2013년을 전망하고자 한다.

1. 2012년 육계산업 결산

가. 육계 사육

2011년 HPAI 이후 급격히 증가하던 종계 입식 마리수가 육계 및 병아리 시세 하락으로 2012년 5~9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10월 다시 큰 폭으로 증가 후 11월 소폭 감소했다. 2012년 1~11월 종계 입식 마리수는 전년 동기 간(643만 마리) 대비 2.4% 증가한 659만 마리로 집계되었다.

10월까지 육용 종계 도계 마리수도 전년 대비 55.4% 증가한 610만 마리로 조사되었다. 2012년 육용 종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육계 및 병아리 시세가 하락하여 종계 도태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계 입식 마리수가 증가했으나, 도계 마리수도 증가하여 2012년 월 평균 종계 사육 마리수의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0월 평



남 경 수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군 종계 사육 마리수는 685만 마리로 전년(672만 마리)보다 약 2% 증가했다. 2012년 종계 사육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예년에 비해 성계의 비중이 줄었다는데 있다. 즉, 동기간 육용 종계에서 육성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성계 사육 마리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2012년 1~10월 평균 육성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8.9% 증가한 305만 마리, 성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8.5% 감소한 380만 마리로 나타났다.

산란에 가담하는 성계 사육 마리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계 및 성적이 좋지 못한 종계 도태가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양계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병아리 발생률을 추정한 결과, 2012년 11월까지 평균 병아리 발생률은 전년 대비 2.2%p 상승한 79.2%로 추정되었다.

종계 생산성뿐만 아니라 2012년 육계 생산성의 경우에도 전년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열사의 2012년(1~11월) 평균 육계 생산 지수는 284.0으로 전년(269.3)보다 5.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지수를 구성하는 4개 요소(육성률 상승, 출하일령 단축, 출하체중 증가, 사료요구율 하락)가 모두 향상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따라서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 마리수도 전년에 비해 약 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 통계청의 사육 마리수 발표 수치는 3, 6, 9, 12월 분기로 발표되므로 해당 월 사육 마리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될 수 있으나, 도계 마리수 및 사육 지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연 평균 사육 마리수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육 지표만 보더라도 2012년 닭고기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으며, 2013년 상반기까지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 닭고기 수급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 마리수 증가로

〈표 1〉 2012년 종계 동향

(단위 : 천 마리)

구분	종계 입식	종계 도태	종계 사육			병아리 발생률 (%)
			전체	성계	육성계	
2011년	5,924	3,923	6,716	4,150	2,565	77.2
2012년	6,098	6,098	6,849	3,798	3,050	79.2
증감률(%)	2.9	55.4	2.0	-8.5	18.9	2.0%p

※주 : 2. 종계 입식 마리수와 병아리 발생률은 1~11월

3. 종계 도태와 종계 사육은 1~10월

※자료: 대한양계협회

특집Ⅱ ▶ 2013년도 계육산업 전망

2012년 10월까지 도계 마리수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6,500만 마리였으며 11월과 12월 도계 마리수도 전년 대비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총 도계 마리 수는 7억 9,500만 마리(63만 3,700톤)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

닭고기 수입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 시

장 동향(특히 미국, 브라질)과 국내 시세, 환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2012년에는 환율이 강세를 보였고, 미국과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 감소, 국내 산지가격 하락에도 닭고기 수입량은 증가했다. 2012년 총 닭고기 수입량은 14만 2,100톤으로 전년보다 8.6%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5~8월 할당판

〈표 2〉 2012년 1~11월 평균 육계 생산성 추이

연도	육성률(%)	출하일령	출하체중(kg)	사료요구율(kg)	생산지수
2012년	95.6	31.6	1.54	1.65	284.0
2011년	94.8	31.8	1.53	1.70	269.3
증감율(%)	0.8%	-0.7	0.8	-2.8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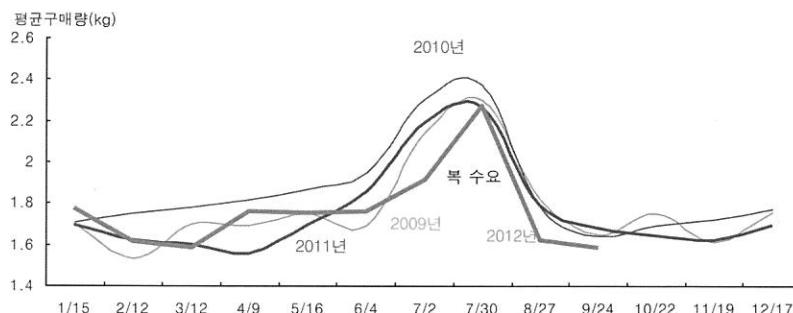
※자료 : 한국계육협회

〈표 3〉 닭고기 공급 동향

(단위 : 천 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추정)
공급	445.6	452.8	486.7	547.4	595.2	633.7
생산	380.3	376.6	408.5	435.5	455.2	473.2
수입	60.0	70.2	70.6	105.8	130.9	143.5
이월	5.2	6.1	7.5	6.1	9.1	17.0

〈표 4〉 가구당 평균 닭고기 구매량



※자료 : Kantar Worldpanel Korea

세에 의한 수입량 증가를 감안하면 작년 닭고기 수입량 증가에 대한 체감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연말 비축 수준도 전년의 약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닭고기 총 공급량은 2011년보다 6.5% 증가한 63만 4천 톤으로 추정된다.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도 크게 증가할 요인이 없어 가격 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도계 마리수와 수입량 등 닭고기 공급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반대로 닭고기 수요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축산물이 공급과잉, 소비 위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여 닭고기 소비는 더 위축되었다. 소비자 조사 결과, 2012년 1~9월 가구당 평균 닭고기 구매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1.7% 감소한 1.76kg으로 나타났고, 3분기 구매량은 4.5% 감소한 1.82kg으로 감소추세가 커지고 있다.

다. 육계 산지가격

2012년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691원/kg으로 2011년보다 10.1%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는 1,740원/kg으로 전년 대비 11.6% 하락했고, 하반기도 1,642원/kg으로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하반기 산지가격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률이 낮은 이유는 2011년부터 산지가격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2012년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3월, 7~8월 계절적인 가격 상승은 보였으나 예년에 미치지 못하였고, 공급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상승세는 단시일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닭고기 소비자 가격의 경우, 육계 산지가격과 비슷한 등락을 보이나 하락폭은 적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격은 산지가격의 상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락시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12년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4.5% 하

〈표 5〉 월별 육계 산지가격

(단위 : 원/생체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1,466	1,759	2,223	1,759	1,562	1,668	1,757	1,819	1,538	1,640	1,645	1,450
2011년	1,875	2,123	2,399	2,478	1,543	1,389	1,910	1,865	1,645	1,770	1,684	1,586
평년	1,860	1,829	1,918	1,816	1,494	1,577	1,933	1,829	1,507	1,647	1,701	1,655
전년대비 증감률(%)	-21.8	-17.1	-7.3	-29.0	1.2	20.1	-8.0	-2.5	-6.5	-7.3	-2.3	-8.6
평년대비 증감률(%)	-21.2	-3.8	15.9	-3.1	4.5	5.8	-9.1	-0.5	2.0	-0.4	-3.3	-12.4

※주 : 2012년 12월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 농협중앙회

특집Ⅱ ▶ 2013년도 계육산업 전망

락에 그친 5,736원/kg으로 추정된다.

2. 2013년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2012년 1~11월 총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3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2012년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계 조기 도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생산 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량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규모 확대가 진행되어 2013년 하반기 공급량도 2012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5,986만 마리, 2월은 0.4% 증가한 5,207만 마리, 3월은 3.0% 증가한 6,051만 마리로 전망된다.

3월까지 전년 대비 도계 마리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는 2012년 동기간 도계 마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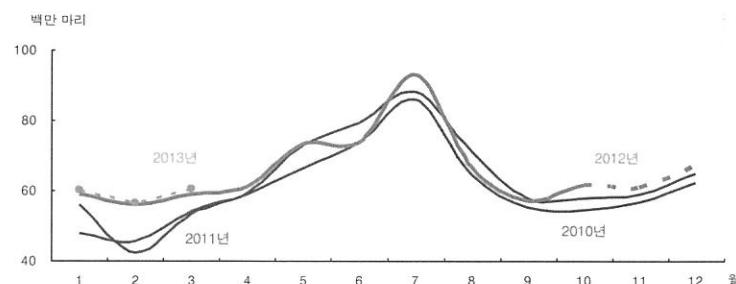
이후 도계 마리수도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계 마리수 증가에 따른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비축물량이 감소할 요인은 없어 보인다.

수입 닭고기의 경우에는 많은 해외 변수에 의해 물량이 결정되겠으나, 현재를 기준으로 수입량을 전망하면 월 7~8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물론 복 시기 물량은 1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량의 경우 7~8 천 톤이 적은 물량은 아니나, 2012년 급증한 수입량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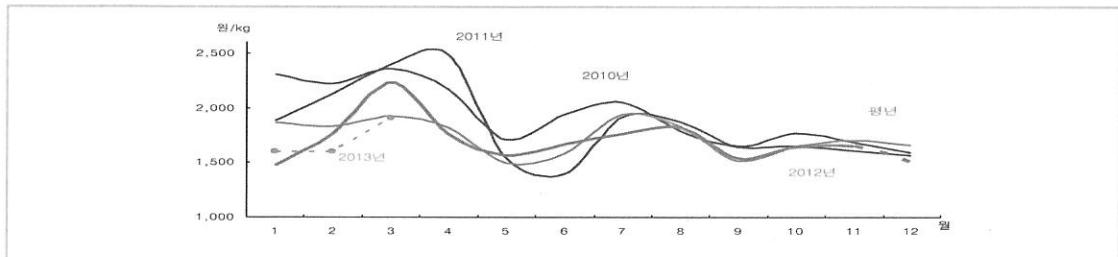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닭고기 공급량 증가는 201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망이 어렵다. 수입량 증가로 인한 국내산 닭고기 시장 점유율 감소로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생산량으로 공급 과잉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 축산물(돼지고기, 쇠고

〈표 6〉 도계 마리수 전망



※자료 : 농업관총센터 전망치

〈표 7〉 2013년 상반기 육계 산지가격 전망



※자료 :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기, 오리고기, 계란 등) 공급량도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닭고기 수요 증가요인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2013년 육계 산지가격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3년 1~3월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하고 소비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1월의 경우 2012년 1월이었던 설 연휴가 2월로 늦어져 수요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로 2월의 경우 연휴로 인한 추가적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1월 육계 산지가격은 2012년 대비 2~16% 상승한 1,500~1,700원/kg으로 전망되고, 계절적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2월은 설 연휴로 인해 보합세를 보이며 1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3월은 1,800~2,000원/kg으로 전년 대비 10~19% 하락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수준의 가격도 원가선 이하의 가격인데 2013년 상반기에는 사료가격과 연료비 인상 등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육계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종계 도태 등을 통한 공급량 조절과 소비촉진이 적절히 이루어져 산지가격이 상승하길 기대해본다.

3. 맷음말

축산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다루는 산업으로 미래에 어떠한 변수에 의해 수급이 변동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 가운데 육계는 생산 주기가 가장 짧아 일시적인 변동이 자주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 예측가능한 객관적 지표는 공급과잉을 나타내고 수입육에 국내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도 존재한다. 지금 필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소비촉진’이다. 그 외에 단기적으로 불황을 해소할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닭고기 상품 개발, 보급되어야 하며, ‘위기는 기회다’라는 명언이 2013년 육계 산업에서 들려오길 바란다.